

# 歷史諸問題



第 **1** 輯

1948

*suby*

發行所 朝鮮歷史編纂委員會



# 歷史諸問題 (第壹輯) 次例

## 序論

江華條約의 歷史的敎訓과 締結當時의 國內外情勢	李	清	源	五
北學論의 發生과 그 史的考察	金	錫	亨	天
우리나라에 對한 歪曲된 對中從屬國論을 駁함	韓	吉	彥	五

## 外國史潮

歷史事實에 對한 論考와 쓰말린의 著作	이	민	프	스
米國의 假裝된 朝鮮獨立權護에 對한 史的 論證	아	프	드	브
조선 史研究의 諸問題	에	게	끼	나

## 史籍評論

알렉산드르 프코프著 「西歐哲學史」에 對한 討論要旨의 總括	그	가	크	마	끼	로	프	스	끼	一〇九
(資料) 조선 科學翰林院 事業紹介	編	輯	部	一	三					

朝鮮 歷史編纂委員會에 關한 決定書	一	七	八
--------------------	---	---	---



民主主義人民共和國樹立萬歲！

# 歷史諸問題



Из книг  
Льва Рафаиловича  
КОНЦЕВИЧА

## 第 1 輯

1 9 4 8

朝鮮歷史編纂委員會



## 머릿말

過去生活에 있어서 우리들은 燦爛한 歷史傳統을 가진民族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歷史는 虛構로서 歪曲되어 所謂『日本精神』으로 去勢하며 包攝시키려고 試圖한 暴惡한 日帝의 蠻行으로因하여 蹂躪되어왔던 것이다.

이와같은 環境속에서 오랜歲月를 보내왔으며 長성한 우리를 젊은世代의 人民들은 歷史傳統에對한 眞實한 知識을 가지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政治的 社會的環境은 우리에게 正確하며 科學的인 歷史研究을 廣汎하게 그리고 深奧하게 展開할것을 全人民的인 課題로서 提起되었다.

여기에서 歷史研究에對한 關心이 急激히 提高되었으며 따라서 眞正한 우리나라 歷史編纂에對한 人民層으로부터의 要請이 促迫되어진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歷史研究家들에게 榮光스러운 우리民族의 發展史와 文化傳統을 眞摯한 科學的態度로서 考究할에對한 緊急性과 重大性의 크나큰 責任이 負荷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歷史研究家들은 우리民族의 深刻한 歷史的現實에 處遇한 時期에 있어서 우리全人民들의 思想的武裝을 強化할에對한 促急한課題가 提出되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賣國奴들은 歷史의 流轉을 가로막으려하며 自己의 祖國을 外來帝國主義者들에게 팔아먹으려고 狂妄하고 있는 試學에對하여 그亡國의 反動性을 暴露하며 朝鮮民族의 英勇한 過去를 眞正하게 解明하여 우리나라 歷史의 모든敎訓에서 우리民族의 進路에對한 指針이 되도록 할 것이며 또한 祖國의 人民들에게 社會發展과 政治鬭爭의 法則에關한 知識과 革命의 原動力에關한 知識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民族을 結束하며 武裝시키는 偉力있는 思想的武器로서 될수있도록 史實을 正確하고



眞正하게 分折하여 論証하므로써 우리나라 全體 人民들에게 偉大한 民主建國과 自主獨立의 最後勝利와 全世界에 있어서의 民主主義의 勝利에對한 信念을 確固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民族의 霸氣와 英勇을 喚發시켜서 朝鮮民族의 祖國愛 敵에對한 限없는憎惡心 侵略者에對한 自己犧牲의鬪爭心을 붓도다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課業들을 成果있게 達成하며 朝鮮의 歷史科學을 새로운 높은段階로 올리기 위하여서는 歷史研究家들은 干先 堅實한 方法的理論으로 武裝된 研究基礎를 設定하여야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우리나라 歷史家들이 全體的으로 統一的으로 取扱한著作을 準備하는데 있어서 앞으로의 크다란 前進이 約束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歷史研究의 現段階의 水準에 있어서나 規模에 있어서 또는 그方法的理論에서 볼때 先進國家에 비하여 大端히 貧困하며 組織性이 缺如하며 落後한狀態에 있다는 것을 認定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提高되어야 하는 人民層의 歷史的關心에對한 欲求를 滿足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適切한 解答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歷史研究部門에 있어서의 實相인 것이다.

한 우리들의 歷史編纂事業이 始作되지 數個星霜이나 되지만 우리編纂事業의 進行狀況이며 研究內容에對하여 一般的으로 公開할機會를 가지지 못하였든關係上 우리들의 事業自体가 一般人民들과는 隔離되어있었고 象牙탑의이었으므로 人民의인 大衆批判도 人民便으로부터의 幫助의인 積極的參加도 가질機會조차 없는形便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事情은 歷史研究의 基礎的事業으로되는 史料수集이며 文獻調査等等에 있어서 人民大衆과의 緊密한 連繫가 斷絶된關係로 所期의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事業作風은 우리의事業이 大衆속 에 廣汎하게 組織되지 못한데서 우리事業의 面前에 가로놓이고있는 가지가지의 隘路를 開進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歷史研究家들의 責務遂行에 있어서는 歷史研究에關한 生成發展하는 創造的인 先進理論을 豊富히攝取하므로서 科學水準을 높이며 研究性을 높이는 方向에로의 高尚한 志向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歷史編纂事業을 一層 높은 段階로 引導하는데 크다면 因素로 될 것이다 「歷史諸問題」의 發刊은 從來의 狹隘한 事業方式을 拋棄하고 새로운 事業方式을 써서 우리 歷史研究의 成果가 全人民의 問題로 提起된 高尚한 欲求에 應答할 수 있도록 努力하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歷史諸問題」誌上을 通하여 우리 歷史研究家들이 어떠한 事業에 從事하고 있으며 어떠한 諸問題가 研究進行되고 있으며 어떠한 補足的인 研究가 새로이 提起될 것인가에 對하여 傳達하게 될 것이므로써 一般人民들과의 連繫도 스스로 強化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 歷史研究事業을 大衆속 깊이 侵透시키며 生生한 現實生活面과 우리나라 歷史事實을 適切히 結付시켜서 우리 民族의 歷史 物質富을 生産하는 者의 歷史 勤勞人民의 歷史로서 再構成하여야 될 것이며 훌륭한 우리나라 歷史科學의 創造的成果를 獲得할 수 있도록 精力的인 推進이 要請되는 바이다.



# 江華條約의 歷史的 敎訓과

## 當時의 國內外 情形

李 淸 源

### 序 言

江華條約締結前後의 國內外 情形을 史的으로 考察하여 볼 때 國際的으로는 끊임없는 外來資本主義勢力의 侵略的 壓력과 國內的으로는 失脚한 大院君의 뒤를 襲繼한 閔妃를 中心으로 하는 閔氏一派의 威權政治의 專恣와 腐敗를 落하여 가는 無能한 統治階級에 對한 人民들의 抗爭等等으로 特徵지을 수 있을 것이다.

大院君의 保守的인 鎖國政策과 苛重한 擄取로 因하여 人民의 憤怒는 드디어 大院君의 沒落을 促進시키었다.

이와 같이 大院君과 人民과의 對立 閔妃와의 政權爭執으로 起因한 孤立化等等

政治的社會的 條件아래에서 政權을 掌握한 閔妃의 執政 亦是 別다른 것이므로서 統治階級中 頑固한 保守에

反對하는 다른 한 主人이 마주어진데 不過하였다.

따라서 閔妃를 中心으로 한 政府가 밀려드러오는 外來文明에 對하여 若干吸收하려고 하는 當代의 態勢는 大院君과



根本的으로 判異되는 進歩性的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國際情勢가 이미 亞細亞의 封建李朝의 鎖國을 許容하지 않았으며 大院君처럼 排外熱을 煽動 鼓吹하므로서만은 도리어 自己들의 存立을 危殆롭게 할 情形에 處하고 있었으므로 從來의 支配權을 그대로 保持하기 위하여는 多小 進取的인 方法을 써서 漸進的으로 外來文明을 攝取하며 그政敵으로서의 大院君勢力에 對한 對抗上方便으로서 當時 朝鮮侵略을 非하고 있는 日本勢力과 結托하여 自己들의 地位를 保全하려는데 本質的인 內容이 있었던 것이다.

東方에서 第一 먼저 外來資本主義勢力앞에 通商開放의 門을 열고 資本主義化的인 過程에 드러선 日本은 高宗十二年乙亥八月(一八七五年)에 有名한 黑船戰術을 本받아 雲揚號를 江華草芝嶺에 侵入시키려고 武力으로서 通商을 强請하면서 航路를 測量하고 邊民을 掠奪하는等 갖은 蠻行을 하기애 이르렀다.

이들의 强壓的 侵略에 對하여 草芝嶺 永宗島 우리나라軍民들은 祖國防衛上 應戰하여 마침내 倭寇를 一旦擊退시켰다. 그러나 미리부터의 計劃的인 侵略的蠻行으로 强迫하는 倭寇는 本格的인 侵攻의 口實로 삼았다.

그리하여 翌年인 一八七六年 高宗十三年丙子一月에 所期侵略의 達成을 위하여 그들은 黑田清隆 井上馨을 全權으로 陸兵八百 軍艦八隻 運送船三隻으로 한 艦隊를 引率하고 示威的인 强壓 밑에 江華에 再侵하여 開放을 强要하였다.

이에 唐慌한 高宗은 申飭 尹滋承으로 하여금 屈辱的인 朝日修好條規를 一八七六年三月二十六日에 締結하여 外



國의 侵略勢力앞에 投降하였으며 妥協함으로써 釜山 仁川 元山等 三港을 開港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것은 日本資本主義 朝鮮侵略의 端初의 據點이 되게 하고 또한 이條約은 朝鮮의 半殖民地化의

起點이 되었다. 이리하여 日本資本主義는 朝鮮의 開放을 通하여 資本主義的侵略의 常套的인 첫手段을 써서 그

市場을 海外에 獲得하였고 一事變을 거쳐서 資本主義隊列에 비비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며 侵略의 大陸政策의 發

足에 對한 最初의 無言宣布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江華條約을 契機로 하여 無力한 朝鮮의 統治階級은 이

條約締結以後에 있어서도 賣國的인 許多한 利權을 外國에 賦與하였다.

外國의 侵略勢力은 自己들이 霸權을 確立하는데 汲汲하였으며 無氣骨한 統治階級과 結托하여 이를巧

妙하게 利用함으로써 甲午農民戰爭의 鎮壓에서 보는바와같이 腐敗한 統治階級과 合作하여 革命的 昂揚과

進歩的인 力量을 抹殺하는 憲兵的인 役割을 担當하여 왔던 것이다.

이 反面 人民들은 統治階級과는 反對로 江華條約以後 外來資本主義 侵略勢力의 進攻으로 因하여 加甚해진 統

治階級의 諸壓제를 反對하여 本能的으로 驅逐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祖國의 獨立과 民族의 자유를 위하는 人民들은 意識적으로 또는 無意識적으로 甲午農民戰爭에서

보는바와같이 外來侵略勢力앞에 投降하여 버린 腐敗한 統治階級을 反對하여 堅決하게 抗爭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兩個의 本質적으로 다른 指向과 鬪爭의 具現인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統治階級은 妥協적이었고 投降的

이었으므로 朝鮮을 亡치게 하는 길로 나아갔고 統治階級에 對한 人民들의 反對와 抗爭은 朝鮮을 獨立과 自由에로

引導하는 길을 찾게 하는 契機的인 因素로 되었고 또한 後世代에 民族的인 霸權의 歷史的인 敎訓을 남기게 되어 있었다.



# 一、江華條約締結을 契機한 日本資本主義의

## 侵略과 社會政治經濟上의 轉變

(1) 江華條約의 半植民地의 性格

自生的으로 資本主義化하는 社會의 生産力의 發展이 없는 停滯의인 아제아의 李朝封建社會가 日本資本主義에 依한 強制開港은 朝鮮社會의 半植民地 半封建化를 端初지었다. 一八七七年 武力의 示威의 威脅 아래에서 맺은 朝日 修好條約과 朝日通商章程은 治外法權 居留地規定 船稅外에는 一切無關稅等 獨立國으로의 休面을 損傷한 條約이 었다.

朝日修好條規는 侮辱的인 條件으로서 그內容을 具體的으로 檢討한다면

第二款의 京城에의 公使駐在權은 朝鮮의 首府에 日本의 政治的發言權을 確保하기爲한 手段이었으며

第四款과 第五款에 記載되어 있는 두個의 開港場에서 日本人은 自由로 通商할수있으며 한個 特殊한 世界를形

成하고있다.

이와같이 이條規는 朝鮮의 義務만을 規定하였고 日本에는 何等の 義務도 負擔되지 않았었다.

第七款은 // 朝鮮國海岸은 島서 巖초가 危險함으로 日本國航海者는 自由로 海岸을 測量할수있다 // 라고하여 政

治上 軍事上 重大한 海岸의 測量을 外國에서 自由로 施行할수 있는에 依하여 國防上의 天然保障을 喪失하고

政治的으로 次期에 要求할 侵略據點인 特權의 前提를 만들어 놓았다.



또 第八款은 "日本國政府는 朝鮮國 指定의 各港에 時宜에 따라 日本商民을 管理하는 官을 設置하고 兩國間에 交涉할 事件이 있을 때에는 該官으로부터 그곳의 地方長官에게 會商하여 辨理시킴"이라고 하여 地方에의 領事派 遣를 規定하였다.

이 領事派遣의 表面上理由는 居留地事務의 保호이나 實地에 있어서는 그以後의 事實이 證明하는바와같이 日本 資本主義의 探偵(領事)들의 朝鮮內情과 地方人心을 偵探하며 虛僞의 浪說을 流布시켜 人心을 動搖시킴으로 外 人民을 서로 離間시키기爲한 한個의 手段과 方便이었다.

第九款은 "兩國는 이미 通好를 經하였으므로 彼此人民은 各自任意로 貿易할수있으며 兩國官吏는 조금도 通商을 制限 또는 禁阻할수없다"라고하여 自國內의 産業과 貿易을 自己國家의 立場에서 自主的으로 統制하지 못 하고 船稅外에는 一切 無關稅로 廉價한 日本商品이 마음대로 輸入되어 朝鮮人民을 掠奪하여 朝鮮經濟를 混亂에 빠지게 하는것을 意味하였다.

더욱 第十款의 領事裁判權 即治外法權은 司法의 自主權을 喪失한 言語道斷의 條款이었다.

即 "日本國民은 朝鮮國 指定의 各港에 在留中 罪過를 犯하여 朝鮮國人民과 交涉할事件이 생길時에는 모두 日本國官員의 審斷에 歸한다"라고하는 治外法權은 朝鮮의 國權을 損傷하며 獨立國家로서의 權利를 行使하는데 있어서 決定的인 障礙物이었다.

朝日通商章程(八月二十四日)第七則에는

一、速히 檣의 商船及蒸氣船(木船附屬의 小艇을 除함) 金五圓



一、獨木檣船(貨物五百石以上을 積載할 수 있는 船)

金五圓

一、獨木檣船(貨物五百石을 積載치 못하는 船)

金一圓五十錢

日本國政府에 屬하는 諸官船은 港稅를 不納한다라고 規定하여 船稅外에는 一切 無關稅 卽關稅自主의 權利를 喪失한 것이었다.

國內에 있어서 社會的生產力의 發展이 없이 開放에 對한 如何한 準備도 없이 外國資本主義의 強要에서 開放한 社會的 條件 아래에서는 自己들의 民族的인 工業을 發展시키며 그 落後를 克服하기 爲하여서는 保護關稅政策을 採야 함에도 不拘하고 關稅自主權을 喪失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外國資本主義가 不等價交換으로서 朝鮮人民을 掠奪하며 朝鮮의 民族經濟를 破壞하는 것을 意味하였다.

上述한 第四款의 居留地規定은 內地旅行權制限(朝日修好條規附錄第四款)과 같이 一見 日本의 不自由를 意味하는 것과 같은 外觀을 보이었으나 第九款의 通商의 保護 第八款의 領事駐在과 그 辨理權 第十款의 領事裁判權과 結付되는데 依하여 日本은 政治上 經濟上 特殊한 利益을 保障받으며 그 反面 朝鮮에 關하여는 半植民地的 性質을 띤 條約이었다.

以上の 分析으로서 이條約이 獨立國으로서는 到底히 있을 수 없는 半植民地 不平等條約이라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다.

恒常 農民의 榨取와 支配에 있어서는 蠻勇을 부리던 當時의 統治階級은 日本의 武力的 示威과 威脅앞에는 國家將來의 發展과 体面도 생각할 사이없이 屈服 投降하여 그들의 無知 無能을 餘地없이 曝露하고 말았다.



日本の 實踐的 奸智와 植民地制握의 侵略的 要求에서 나오는 이條約은 日本資本主義를 爲하여 半植民地的 市場 및 資源 供給地로서의 朝鮮의 地位를 規定하였다.

또 이條約으로서 日本資本主義가 確保하려고 하였으며 所謂 征韓論을 通하여 決死的 課業으로하던 植民地

圈 朝鮮에 關한 侵略의 最初의 立脚點은 形成되었으며 그 以後 一切의 半植民地的 通商條約의 前例와 그 規準 이 되었다.

그러므로 日本에 있어서는 朝米修好條約을 幹旋한 바와 같이 國際的 權利主張의 한個의 代價的 典當物이 되었

던 것이다. 이와 같이 日本資本主義는 朝鮮을 侵略하여 獨占的 植民地로 만들려는 兇手段으로 "朝鮮國은 自主의 國家로

서 日本과 平等의 權利를 保有한다" (朝日修好條規第一款) 라고 規定하여 朝清 宗屬關係의 否認을 最後로 宣言 하였다.

同朝日修好條規追加條約 第十款에는 "朝鮮國은 아직 海外諸國과 通信하지 않았으나 日本國은 年來諸國과 締

盟友誼가 있는故로 今般 朝鮮國沿岸에 諸國의 船舶이 風破漂着하는 境遇에는 朝鮮國人民은 理에 있어서 이를

愛恤하지 않을수 없다. 該漂民이 本國에 送還하여 飭誌을 바란다면 朝鮮으로부터 各港 繫留의 日本國管理官에

게 遞付하여 本國에 返還시키고 該官員은 이를 領諾하지 않을수 없다" 라고 規定하여 當時 朝鮮에 政治勢

力을 扶植하고 있던 淸國勢力을 驅逐하고 朝鮮을 淸國의 制約으로부터 分離시켜 以前의 朝淸關係를 그대로

朝日關係로서 代置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朝鮮을 自己들의 獨占의 植民地로 만들려는 口實이었으며 한個 方便策이었다.  
 그리하여 江華條約 締結以來 한때 日本은 朝鮮을 自己들의 손으로 開放시켰다는 憑자말에서 이것을 利用하  
 면서 侵略의 據點으로 準備하는 時期이었다.

註 레닌先生은 一九一六年에 쓴 帝國主義와 社會主義의 分裂에 있어서 日本資本主義의 軍事警察의 特徵을  
 指摘하여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日本 로씨야에 있어서는 軍事력의 獨占 無限한 領土의 獨占 中國其他 異  
 民族을 掠奪하는 便宜의 獨占이 今日의 近代的 金融資本의 獨占을 一部分 代位하며 一部分 補充한다" 레  
 닌先生의 말은 日本資本主義의 歷史의 性格을 充分히 說明하고있다. 그러므로 日本資本主義는 朝鮮에 對한 植民  
 地政策의 처음부터 自由정정에 依한 市場의 獲得이 아니라 獨占의 市場의 要求이었으며 나아가서는 資本의 確  
 保와 活動때문에 原料資源 그自體를 領有하고 獨占하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發展의 뒤따라짐을 強大한  
 軍事력에 依하여 恒常 補充하였던 것이다.

(2) 江華條約以後 日本資本主義의 貿易上 獨占과 經濟的 侵略  
 江華條約으로부터 米英과의 通商條約締結에 이르는 사이는 貿易上에 있어서의 모든 利益을 日本이 獨占한  
 時代였으며 이時期에 있어서의 日本貿易의 構成은 다음의 表가 잘 말하고있다.



日本獨占時代의 貿易 額 累年 表

年	次	輸		入		計	輸	出	合	解
		價	額	價	額					
一八七七	七、三〇	七、三〇	三六、一	一四、四〇	二九、九	一〇〇、一	二九、五八	二九、五八	三〇八、〇九三	
一八七八	六、三〇	六、三〇	三〇、六	一一、三六	二〇、四	一〇〇、一	二〇、七〇七	二〇、七〇七	二九七、三三五	
一八七九	十二、三〇	十二、三〇	九、八	五二、三六	三〇、三	一〇〇、一	三〇、〇〇	三〇、〇〇	一、四四〇、〇〇	
一八八〇	一、一八	一、一八	二、九	六六、八〇	八、一	一〇〇、一	一、三三、三二	一、三三、三二	二、五二、六六四	
一八八一	一、一八	一、一八	一〇、四	一、七四、六八	九、六	一〇〇、一	一、八三、六七	一、八三、六七	三、八七、三九四	
一八八二	一、一八	一、一八	六、四	六九、〇四	九、六	一〇〇、一	八九、三五	八九、三五	一、〇九、七六七	
總計	六、三〇	六、三〇	二、七	四〇、五五	八、三	一〇〇、一	五、一四、八九	五、一四、八九	九、七八、三三六	

備考 露國大藏省調査 韓國誌所載 日本關稅

註「이當時의 貿易은 主로 開港市의 居留地(租界) 貿易으로서 日本에 依하여 獨占되었으며 朝鮮의 所謂貿易商이라고 하는것은 客主等이 이를 日本人과 間接으로 去來하는데 不過하였다」(元山發達史一九頁及朝鮮社會經濟史研究一六七頁) 그리므로 日本人은 居留地의 治外법權의 擁護下에 多大한 利益을 壟斷하여 絶對優越

의 地位를 確保하고 있었다. 이表가 말하는 前記 五年間의 朝鮮과의 通商은 日本의 獨占時代로서 日本은 歐朝사이에서 歐洲商品을 朝鮮에 供給하였다.



商業上の 交通은 專히 日本船舶을 썼으며 汽船은 거의 全部 有력한 日本郵船會社의 前身인 三菱會社의 所  
有 (韓國誌 一三頁—一七頁) 船이었다.

日本으로부터 朝鮮에 輸入하는 商品은 거의 上海로부터 神戶에 輸送하였다가 다시 朝鮮에 載送한 것으로 이것  
은 純粹한 仲繼商業이었다.

以上の 數字가 이것을 具體的으로 說明하고 있으며 이와같이 「未發達狀態」에 있는 朝鮮과 歐洲와의 사이의 生  
産物交換이 商業資本 (日本商人—필자) 에 依하여 媒介되는限 商業上の 利潤은 單純히 商略 및 欺瞞으로서 나  
라날뿐 아니라 또 이것들로부터 商業上の 利潤의 大部分이 썩기는 것이다.

「商業資本이 서로 다른 諸國에 있어서의 生産價格間의 差異를 搾取한다고 하는 것은 暫時 不問에 불치고  
右生産方법은 商人資本이 剩餘生産物의 壓倒的 一部分을 占有한다」는 結果를 가져온다」 (資本論三卷第四編二十  
章 商人資本에關한 歷史的事項) 이곳에 이期間에 있어서의 日本貿易 따라서 商業資本의 性格이 있다. 同時에  
이것은 日本資本主義가 아직 幼弱한 商業資本의 階段에 머물러 있다는 事實을 端的으로 說明하고 있다. 同時에  
以上에 보는바와같은 貿易의 發展을 通하여 日本의 船舶은 마음대로 朝鮮의 港口에 來往하여 巨大한 中間  
利潤을 얻었고 따라서 日本의 「壓倒的支配의 地位에 있던 商業資本의 發達は 이르는곳 마다 盜掠의 一制度를

代表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欺瞞的手段으로 (註) 奪取하여간 原料品은 日本에게서 資本으로 轉化하여 資本의  
原始的蓄積의 源泉이 되었으며 이와같은 「植民地制度는 貿易과 航海를 温室的으로 成熟시켰던 것이다」 (前出同)

(註) 日本資本主義가 얼마나 欺瞞的方법으로 朝鮮의 榮養分을 奪取하여 왔는가는 「我人民의 貴國에 輸送한



는 各物件은 我海關에 있어서 輸出稅를 賦課하지 않고 貴國으로부터 我内地에 輸入하는 物産도 數年間 我

海關에 있어서 輸入稅를 賦課하지 않기로 我政府의 內議決定」(韓國條約類纂一九〇八年刊九六頁一九七頁)

하므로 그代身 朝鮮側에서도 前記 港稅外에는 一切 徵收하지 않기로 規定한다는 傍若無人한 無關稅아래

에서 日本商人들은 歐洲生産品을 仲繼하여 獨占的高價로서 販賣하여 莫大한 利潤을 取하여 왔으며 그反面

「我人民에 있어서는 自國의 (朝鮮—필者) 食料品을 내어 놓고 開市日에 際하여 多數의 穀物을 一時에 買占하

였(元山發達史一〇九頁 二九頁) 으며 (一八八〇) 「元山里市場에 朝鮮이 과는 大豆의 安價함을 알고 開市日마

다 이것을 購買하여 母國에의 輸送을 開始하였다. 當時 大豆의 市況은 五升斗一斗에 對하여 票錢三十五匹

即日貨로 換算하여 一圓八九十錢也」馬關市場에 있어서 一石에 對하여 一圓二、三十錢의 利益을 얻었다」고 하

는 巨大한 利潤도 以上에서 보느냐와 같은 欺瞞的手段과 盜掠에 依하여 獲得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日本人은 釜山에서까지 그軍艦이 碇泊하지 않으면 産業을 경영하지 못하는 狀態에 이르렀다(韓國誌一一二頁)

는 것이며 이것은 日本이 武력의威壓과 示威아래에서 巨大한 利潤을 奪取하여 가는것을 意味한다.

### 二、江華條約 締結以後의 國際關係와 國內情形

(1) 第二開港으로서의 朝米修好條約과 歐米資本主義의 侵略

日本과의 修好條約以來 一八八〇년에는 朝米修好條約이 締結되었다. 縮結以後에 있어서도 그條約締

結以後에 있어서도 그條約締

結以後에 있어서도 그條約締



結을 頑強히 拒否當해오면 歐米資本主義가 朝鮮을 開放한 第一歩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 이條約이 淸國의 斡旋아래에서 朝鮮이 獨立國임을 確認받으면서 締結되었다는것은 朝淸國의 特殊한 從屬關係의 否認을 淸國自體가 承認한 것이었다.

朝鮮의 世界資本主義와의 孤立이 從來의 特殊한 朝淸關係의 存續이었다면 淸國의 斡旋아래에서 朝鮮市場을 아메리카資本主義에게 開放하였다는 (더욱 "最惠國條款"의 優待를받으면서 1第二款) 그事實가운데 벌써 朝鮮이 客觀적으로 淸國의 羈絆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要因이 伏在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1 締密히 말하면 이條約은 條約締結의 米國側當事者「슈벨트」提督에게 「一八七一年에 朝鮮砲臺를 襲擊한 事件은 充分한 說明을 要할터인則 該國政府에 向하여 아주 適當하고 또 強化的인 方略을 쓰면 該國各港을 米國上業을 爲해서 開放하는 結果를 얻을것하니 貴下는 이目的達成에 對하여特別한 考慮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米國海軍省의 命令이 充分히 말하는바와 같이 威脅과 欺만과 僞善으로서 朝鮮을 開港시켜 米國上品の 販賣市場 卽植民地로 만들것을 目的으로 한 것이었다.

또 條約締結前 一八八〇年十一月「슈벨트」가 워싱턴에서 「確實히보기를 米國은 通상에 關한것뿐 아니라 그隣邦들의 侵犯을 防禦하고萬全을 期하는에 關해서도 朝鮮을 諒解시킬줄안다」라고하여 隣邦의 侵犯(特히帝政로써

아) 防禦를 口實로 朝鮮을 獨占하려는 侵略的 陰謀를 內包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條約은 그以後의 歐米資本主義의 侮辱的인 條約의 先驅이었으며 따라서 그標本이 었던 것이다.

또 이條約締結에 있어 米國이 頑強하게 朝鮮에 있어 從屬關係에 對한 淸國의 如何한 主張도 條約은 承認

을 承 認한 것이었다.



하지 않고 朝鮮의 完全한 獨立이란 意見을 發展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米國의 朝鮮에 對한 好意 또는 朝鮮을 尊敬하는 意味에서 主張한 것이 아니라 獨立한 朝鮮에 米國의 經濟的 支配를 樹立하는데 또 將來 政治的 支配까지도 樹立하는데 있어 가장 容易한 順序를 가져온다고 생각한 까닭이었다.

一八八一年에는 從來 特殊한 關係를 맺고 있던 淸國은 그 特殊한 關係를 極度로 充用하면서 「淸國 朝鮮 商民 水陸 貿易 章程」을 締結하여 淸人이 朝鮮 內地에 들어와서 行商 開店은 不許하니 貿易하기 爲하여 內地에 들어가려는 者에게는 自國 商務 委員과 地方과 合議한後 許可書를 發給하며 또 營業 以外의 目的으로 內地 旅行을 하려고 하는 者는 同一한 手續으로 旅券을 發給하고 고하여 처음으로 朝鮮 內地 旅行을 認定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外國人의 內地 旅行 通商의 原則은 그 翌年 朝英 修好 通商 條約 (十一月二十六日)에서 「朝鮮 內地에 貨物을 輸送 賣却 或은 土産을 購入함을 許하고 오직 領事가 發給하고 地方官이 査定한 稅券을 攜帶할 것을 明示하였다」 (第四款 六項)

또 第四款 一項에 從來 契約으로서 認定된 開港場 仁川 釜山 元山 楊花津 外에 京城까지 指定하여 首府에서 自由로 通商할수 있는 權利를 獲得한다음 同二項에서 英國 商民은 前往以上 指定場所에서 永租地段 할수있으며 永租地段을 轉行할수있다」고 規定하여 前記 五個所에 있어서는 指定한 租界內와 그 周圍 十里以內에 있어서 土地 家屋의 貸借은만 아니라 所有權까지 獲得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孤立 朝鮮의 終焉이며 淸國이 強固히 主張하던 淸朝 宗屬 關係의 終焉이었다.

따라서 事實로 內地를 資本主義 列國의 營業 資本에 開放한 것이며 同時에 朝鮮을 侵略하기 爲한 資本主義



貿易이 從來와 같은 居留地貿易의 範圍를 離脫하여 積極的으로 進攻하는 길을 열어 주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英國은 朝英修好條約에서 許多한 特權을 剝奪하였나니「朝鮮人逃亡犯人을 逮捕하기 爲하여 英船 英人家宅에 侵入할수 없으며 오직 英國官憲이 이를 逮捕하여 朝鮮側에 引渡한다는 司法權의 自主性的喪失 더욱 英國軍艦은 開港場은 勿論 朝鮮內到處에 自由로 碇泊하며 또 乘員들이 自由로 上陸할수있다」라고하여 外國侵略者들의 武裝勢力이 朝鮮內에서 自由行動을하며 마음대로 朝鮮을 威脅하며 巨文島事件에서 보는바와 같은 朝鮮領土를 武裝占領하는 特權을 提供하였던 것이다.

다시말하면 英國은 그先行者 米國의 例은 特權을 出發點으로 그위에 더 많은 特權을 追加하면서 그侵略的利慾을 露骨化하였던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朝英條約締結의 英國側當事者「파이크스」는 이條約에 對하여「우리들은 우리들이 要望한 모든것은 獲得하였다」(레이킨즈·하이티·파크스傳 一八九四年 런던版第二卷二一五頁)라고 宣言하였던 것이다.

英國과 同年에 獨逸과 또 一八八二年에는 伊太利 로씨야 一八八五年에는 佛國 奧國 白耳義와 通商條約을 締結하였다.

以上과 같은 一聯의 事實은 資本主義列國이 國內에 있어서의 經濟恐慌 其他 經濟的矛盾의 打開策으로서 商品市場을 새로운 植民地에 求하며 더욱 低下되면서 있는 利潤率을 低廉한 原料獲得과 資本輸出에 依하여 補充하려고하는 自由競爭의 資本主義로부터 獨占的資本主義에로 轉化하는 過渡期에 놓여있는 國際資本主義가 그侵略을 亞細亞 特이中國과 따라서 우리朝鮮에 集中하고 있다는것을 意味하고있다.



資本主義商業은 洪水처럼 밀려들어와 在來의 倏少한 零細農業과 父家長的 家內手工業의 基礎위에 서고있던 封建經濟는 崩壞의危機에 떨어지고 自足自給的인 自然經濟는 解体하기 始作하였다.

人民들의 生活는 急速度로 惡化되어 갔으며 그反面 官吏는 秩序의維持와 社會의安定보다도 賂物과橫領에熱中하였다. 國家財政은 窮乏의極에 達하였으며 支配階級の 無能과 無氣力은 萬民의 面前에 如實히暴露되었다.

(註) 五「朝鮮穀物은 元來 非常히 廉價였으나 三、四年來 日本에 向하여 輸出하므로 말미암아 俄然二倍或은 三倍로 騰貴되어」(近代日鮮關係研究上卷六六七頁)라고 하는바와같이 外國과의 貿易以來 物價가 急速度로 騰貴되었으며 이것은 剩餘生産物을 販賣하는 地主에게는 有利하였으나 自己家族의 糊口에도 모자라는 一般農民 都市市民에게는 以上 없는 苦痛이 었던 것이다.

數百年來의 太平生活의 破綻에서 오는 民族危機는 人民大衆을 政治的으로 覺醒시켰으나 이反面 統治階級の 一部에는 敗北主義的인 卑屈한 文化思潮가 造成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外國侵略勢力的 強大에 놀라며 그를 敵對視하여 스스로 卑屈하며 侵略勢力에의 아침과 屈服을 일삼고 侵略勢力的 走狗로서 露骨的인 逆奸으로서 나타났던 것이다.

이와같은 頹廢한 敗北思想은 封建李朝社會에 있어서의 事大主義的 思想의 延長으로서 이逆奸들은 外國勢力을 近接하기 爲해서는 民族의 体面도 돌보지않는 破廉恥한 行動을 하였으며 乃終에는 日本走狗로서 露骨的으로 日本植民地로서의 朝鮮의 轉化를 宣傳하며 그輿論을 일으키는것을 그唯一한 使命으로하고 날뛰었던 것이다.

(2) 壬午軍變의 經過와 二性質



江華條約以後 外國貿易에 依한 資本主義商品의 無制限的 侵入으로 말미암아 朝鮮從來의 父家長的 農業과 手工業 및 財政關係는 異常한 衝擊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內部에서 進行되고 있던 崩壞過程에 크게 拍車를 加하였다.

이와같은 危機를 打開하기에는 完全히 無能을 暴露한 閔妃를 中心으로 한 一派와 大院君一派와의 政治的 權力의 掌握을 둘러싼 統治階級 內部的 對立과 鬪爭은 날카로히 展開되었다.

그러므로 社會的으로 確固한 地盤위에 서지 못하였으며 自信있게 自己政策을 實行하지 못한 閔妃를 中心으로 한 一派의 政治生活이 恒常 動搖된것은 決코 偶然한 일이 아니었다.

政治를 自信있게 料理하지 못하고 恒常 焦燥하였으며 動搖하게 된것은 上論한바와 같은 歷史的 社會的必然의 產物이었다.

이러한 條件下에서 壬午軍變이 發生하게 되었다.

一八八一年五月 當時 宣惠廳堂上으로 軍政權을 한손에 掌握하고있던 閔謙鎬가 日本辨理公使 花房義質의 勸誘로 陸軍工兵少尉 堀本禮造를 鍊兵教師로 招聘하여 別技軍을 設置하고 新式軍隊를 養成하는한便 一八八二年二月에 軍制政策에 따라 改編된 軍人들의 衣食이 困難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改編된 軍人들과 城市의 貧民들이 作團하여 軍變을 일으켰다.

一朝에 厥起한 群衆은 新式軍隊에 對한 不平과 嫉視 또 閔氏의 惡政에 對한 憤怒가 爆發하여 給料의 責任者 閔謙鎬以下 多數의 政府要人을 殺害하고 日本敎官 堀本과 日本公使館을 襲擊하는等 일찌기 보지 못하던 軍變을



일으키었다.

이 壬午軍變은 閔妃를 中心으로 하는 政府의 腐敗와 無氣力과 軍糧의 無支給에 憤慨한 軍人과 都市貧民들의 憤怒의 勃動이였으며 그들은 政府大官들을 殺害함으로써 自己들의 目的을 達成하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壬午軍變은 貧困과 抑壓에서 離脫하려는 軍人과 都市市民들의 自然發生的인 運動이였으나 이 運動은 革命的方法으로 自己問題를 解決하며 새로운 時代의 發展을 代表한것은 아니었다.

아직 그當時의 社會的條件은 運動이 이와같이 發展할만한 社會的地盤과 準備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壬午軍變은 保守的인 大院君의 政權奪取의 方便으로 利用되고 말았다.

이 軍變은 江華條約以來 朝鮮市場을 獨占하고있었던 日本에對한「反倭」排外運動의 人民的抗爭이며 客觀的으로는

反侵略의 要素도 內包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軍變은 革命的方法으로 桎梏的인 封建生産關係를 掃蕩하고 따라서 새로운 歷史的時代를 朝鮮의 歷

史上에 올려놓은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軍變은 對外的으로는 國際政治關係에 큰衝動과 또 朝鮮을 둘러싼 淸日兩國의 勢力關係와 그均衡에

變動을 일으키었다.

또國內적으로는 閔妃를 中心으로한 政府의 無力을 百日下에 曝露하였다. 이 軍變을 通하여 모든 社會的矛盾

은 뚜렷하게 表現의었고 閔妃一派의 權威는 餘地없이 失墜되었다.

이 軍變은 獨單的力量으로 解決되지 못하고 完全히 大院君의 勢力에 壓倒되었다가 乃終에 淸國의 軍事力과 淸



國이 大院君을 拉去하여 保定에 拘置함으로써 비로소 이軍變이 解決되었으며 閔妃一派가 一時的인 小康을 얻었다는데 依하여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壬午軍變은 그後에 있어서 甲申政變이 胎動할 發展의 刺戟과 契機를 주었다. 다시 말하면 甲申政變은 壬午軍變에 있어서 內部的으로 準備되었으며 그가 일어날 客觀의 條件을 造成하여 주었던 것이다.

(註) 앞 쓰는 「支那印度論」에 있어서 「十年來 支那에 發生하며 이제야 武力的 革命으로 深刻化한 痼疾의 叛亂의 社會的 原因이 무엇이었던가間에 또 그結果如何한 種類의 王朝의 宗教的 國家形態를 採用할지라도 그勃發의 最後의 誘因은 英國의 加農砲가 尊貴이라고 하는 것은 疑問의 餘地가 없다」 (앞 쓰는 支那印度論—支那及滿州에 있어서의 革命) 라고 한바와같이 우리 朝鮮에 있어서도 壬午軍變以後 繼續的으로 展開된 社會的 一切의 政變 子—에 타叛亂의 「最後의 誘因」은 「日本의 大砲」이었다 卽江華條約以後 怒도와같이 밀려들어오는 資本主義波도의 結果— 文明世界와 接觸의 結果—惹起되고 拍車가 加하여진 社會的 危機 따라서 政治的 危機이었다.

3 濟物浦條約과 淸日兩國의 角逐

日本은 朝鮮을 完全히 獨占化하기爲한 根據地를 確立하며 그것을爲한 口實을 發見하기에 熱中하고 있었다. 그리던차에 壬午軍變이 일어나 日本側에 被害가 있게 되었다. 日本은 이것을 口實로 自己들의 野慾을 實現하는 汗個의 方便으로 삼았으며 그리하여 壬午軍變에 있어서의 自己들의 被害를 口實로 삼아 朝鮮의 植民地化政策을 더욱 積極化하였다.

이 具體的인 表現으로서 濟物浦條約을 들 수 있다.



濟物浦條約은 倭賊의 強要아래에서 統治階級の 屈辱으로 締結된 條約으로 그內容을 보면

日本에 賠償金 五十萬圓支拂 (四條)

朝鮮內에 日本軍隊駐屯權 設定과

朝鮮國의 費用으로서 日本兵營을 設置하고 修繕하는 特權을 設定 (五條) 한다 는 것으로서 이內容만 보아도 國恥

的인 條約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이條約은 侵略國家日本이 江華條約에서 얻은 諸特權과 根據를 自由로 活用하면서 그基礎 위에서 朝鮮에 對한 積

極的인 侵略의 第一步를 내디딘 것이다.

그러므로 이濟物浦條約은 倭賊의 積極的인 極東政策의 出發點이 되었던 것이다. 얼마나 이濟物浦條約이 日本資

本主義가 朝鮮을 獨占의 植民地로 만들기를 위한 侵略的武器가 되는가는 駐兵權과 兵營設置가 淸日戰爭 直前に

있어서 日本의 攻撃的 武器가 되고 있는 事實만 想起하여도 넉넉히 알 수 있다. 이意味에 있어서 壬午軍變以後

의 日本의 對朝鮮政策은 그以前階段과 區分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日本은 濟物浦條約에 뒤이어 一八八三年七月에 日本人民通商章程을 締結하였으니 이것은 日本이 처음으로 獲

得한 最惠國條款 (半植民地) 이 었으나 日本은 이條約에서 從來의 無關稅의 特權은 拋棄하였다. 日本의 이와

같은 積極的 政策과 時間을 같이 하여 老大帝國은 壬午軍變에 있어서의 武力의 領壓을 契機로 一八八二年에는 從

來의 特殊關係를 強力히 充用하면서 朝鮮住民 水陸章程을 締結하여 軍事的 進出과 併行하여 尙事의 進出을 꾀

하였다.



以上에서 본바와같이 壬午軍變까지의 日本의 朝鮮貿易獨占은 壓倒的으로 歐米商品으로서 形成되었으므로 淸國은 朝淸상민水陸章程의 威力을 재빠르게 日本의 歐米商品部分을 奪取하는 武器로서 利用하였다. 朝鮮政府가 처음으로 海關을 設置하게되자 淸國政府는 그 外交顧問이었던 「물렌도르프」 (當時駐天津獨逸領事) 를 朝鮮에 派遣하여 朝鮮海關의 支配權을 掌握하게 하였다. 더욱 一八八四年의 甲申政變의 失敗以後 더한층 露骨的으로 軍艦을 使用하여 武力的 威壓아래에서 傍若無人하게도 脫稅를 公公然히하였으며 그리하여 一八八五年에는 綿布輸入額의 八五% 一八八六年에는 九二%가 淸國의 手中으로 奪取되어 日本의 獨占의 地位를 顛倒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朝鮮은 不知不識間 漸次外國의 半植民地로서 轉落되었으며 朝鮮의 獨占의 支配를 둘러싼 列國의 對立은 或은 政治的으로 或은 經濟的으로 深刻하게 展開되어 朝鮮은 말그대로 東洋의 「발칸이」 되면서 있었다.

더욱當時 世界資本主義는 自由競爭의 時期를 지나 帝國主義時期에로 轉換하려고하는 重大한 客觀的인 條件아래에 處해있었다. 그러나 우리 朝鮮의 經濟狀態는 資本主義의 發展은 姑捨하고 零細耕作에 依據한 封建的인 土地所有制의 桎梏으로 말미암아 아직 새로운 生産狀態를 具現하는 市民階級의 存在도 產業의 發展도 없고 오직幼稚하고 低級한 手工業이 存在하였을 따름이었다.

이와같이 우리 朝鮮은 極히切迫하고 焦燥한 環境에 處해있었다. 그러나 支配階級은 農民에對한 苛斂誅求로서 自己들의 貪慾을 滿足시키었을 뿐이고 外界에서 發展하고있는 急激한 國際정세에 對하여서는 全然無關心 無爲



無策・無能으로써 一貫할만 아니라 더욱 自己들이 서고 있는 이와 같은 腐敗한 社會体制의 維持와 存續만을 꾀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支配階級은 自己들의 支配를 彌縫 保全하기 爲하여 破綻된 經濟的基礎 따라서 그財政的危機를 掠奪  
 1) 바로 그것인 通貨改鑄增加 即一八八三年典圓局(造幣局)에서 當五錢을 改鑄하는 通貨政策으로써 對處하였으므로  
 物價는 騰貴하여 人民의 生活은 날이 갈수록 苦痛과 飢餓가 甚하여졌던 것이다。